

상황극으로 어르신 청소년 공감대 형성

부산 금정구 노인복지관 어르신 소시오드라마 공연

세대통합 및 노인인식개선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상황극 연출 대안학교 학생들 관람후 토론도



부산 금정구노인복지관은 9월 3일 대안학교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노인이 참여하는 소시오드라마'를 진행했다.

소시오드라마란 사회가 느끼는 집단의 문제, 또는 사회적 화두를 행위로 표현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풀어가는 일종의 치유 프로그램이다.

구성원 각자가 상황에 맞는 역할을 맡아 즉흥적인 연기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시오드라마가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으로 꾸며져 관객들을 맞았다.

부산 금정구노인복지관은 9월 3일 복지관 내에서 어르신들이 마련한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복지관이 3월~8월까지 2015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노인이 참여하는 소시오드라마 활동'을 통한 세대통합 및 노인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직접 대중에 선보인 것이다.

'노인공경'을 주제로 하는 이 드라마의 관객은 인근 대안학교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학생'들. 21명의 학생들은 어르신들이 즉석으로 공연하는 10분간의 즉흥극을 보고 20분간의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연극에 참여해 즐거움을 더했다. 8개월 동안 어르신들을 지도해온 이경미 강사(극단 지금 대표)는 "지금까지 노인공경 기부활동, 고부갈등 등을 주제로 상황극을 만들며 연습해 왔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정해준 어르신들이 직접 내용 대사를 세부적인 극을 만들어 가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청소년들만 지도해 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지도해 보았다. 어르신들의 적극성에 놀랐다. 본인들의 경험치를 활용해 연극 내용을 만

들어 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을 보며 많이 감탄했고 강사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소시오드라마에 참여한 배정인(69) 어르신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이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모이다 보니 하나의 상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내는데 모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니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갖

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도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주변을 살피고 상대를 한번 더 생각하는 배려심이 생기게 되었다"며 소시오드라마를 통한 변화를 이야기했다.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노인공경을 이야기한 상황극은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우다다학교 강성빈(16) 학생은 "상황극을 보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마음을 괴롭혔다. 나이 많고 약한 분들을 위한 배려는 당연하다. 조금 더 공감성을 갖춰야 할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연재(16) 학생은 "즉흥 연극이라는 점도 놀랐고 그것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기하셨다는 점도 대단하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청소년 역할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양심에 찔렸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욕박지르며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양보하라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세대를 넘어 서로가 함께 공경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금정구노인복지관 소시오드라마 공연은 '노인공경' '노인이성교제'를 주제로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51)792-7200

정혜숙·하성미 기자

본동 복지관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

8월 29일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실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중성)은 8월 29일 지역조직화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 인근 공원에서 본동벽화마을갤러리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를 실시했다.

본동벽화마을갤러리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는 삼성생명 강남지역사업부 임직원 및 가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 내 노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인근 공원의 벽면을 활동처로 선정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낡은 공원의 벽면에 나눔을 상징하는 하트가 들어있는 수레를 그려 넣기도 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해맑게 웃으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으로 채우기도 했다. 또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트를 그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다.

본동벽화마을갤러리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817-0852 정혜숙 기자



벽화그리기 사업 '마을에 나눔을 그리다' 참가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소방대피훈련 실시

유아예체능단 8월 31일 교실 건물서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 유아예체능단이 8월 31일 유아예체능단 건물에서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5~7세 유아 55명과 인솔교사 7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유아들에게 안전불감증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실시됐다.



유아예체능단 건물에서 실시된 소방대피 훈련

반에서 수업 중이던 유아들은 사이렌 소리가 나자 서로 약속한 듯 낮은 자세로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교사의 인솔 하에 신속히 1층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유아예체능단 김미란 원장은 "백번을 지도해도 넘치지 않는 교육이 있다면 안전교육이다. 이에 유아예체능단에서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소방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장 보련 스피는 "유아들에게 안전교

정혜숙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지원사업 확대

8월 26일 난치병어린이지원 위한 MOU체결

쉼터운영·보건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8월 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한·라 아동병원에서 라오스 정부와 난치병어린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 협약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원거리에 거주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쉼터운영, 보건 의료 사업 및 기초의약품 지원 등 라오스의 의료·보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증진에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현지에 파견한 복지재단 임직원과 라오스정부, 한·라 아동병

원 및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유치원 설립, 무료개안수술, 난치병 어린이 지원 및 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라오스의 의료·보건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라오스 불교계가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라오스에서는 난치병 어린이 1인당 300~500만원의 치료비가 있으면 정기적인 진료 및 항암치료 등을 통해 70%까지 완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치료 자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 몇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26일 정부와 난치병어린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한·라 아동병원 및 라오스 보건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확장 요청이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보건의료 분야가 취약한 상태의 라오스를 위해 2011년부터 라오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환자들의 쾌유 기원, 작은 음악회"

부산 생명나눔 9월11일 동의의료원서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9월 11일 오후 7시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제9회 환자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환자들을 격려하고 차와 다과 등을 나누며 환자들의 쾌유를 발원한다.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피는 "투병생활로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희망을 심어 주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음악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노래'라는 주제로 성우원 엔젤스필, 가수 설라경, 코렌어린이예술단, 밴드 바나나우유 등이 무대를 꾸민다. 공연에 앞서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 직원들은 병실을 순회하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피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분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분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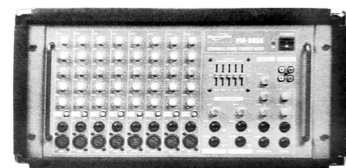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앰프 구성 :

- 스탠드형 앰프 300 watt 1대
- 스텝 믹서 5 채널 1대
- 탁상형 주지스님 마이크 1대
- 사형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07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고급 엘프케이스 1개

◆ 특징 :

- 지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